

6 문장 부호

1. 마침표 · 물음표 · 느낌표

마침표(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술, 명령,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. 예 •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 손을 꼭 잡으세요. • 집으로 돌아갑시다. 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 •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. 예 • 1945. 8. 15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. 1. ~ 10. 12. ▶ 연월일을 표시할 때, 마침표는 연월일이 빠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마침표를 일까지 찍어야 한다. •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예 압록강은 흐른다 / 작은 불도 다시 보자 •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. 예 3.1 운동 8.15 광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. 예 3·1 운동 8·15 광복
물음표(?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. 예 어제 언제 잔 거니? /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? •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,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. 예 • 이 단어는 외래어나, 외국어나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? 어디서 왔니? 무엇하러 왔니?
느낌표(!)	<p>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쓴다.</p> <p>예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! / 깜짝이야!</p>

2. 쉼표 · 가운뎃점 · 쌍점

쉼표(,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. 예 근면, 검소, 협동은 우리 거래의 미덕이다. •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. 예 돼지고기와 새우젓, 굴과 레몬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다. •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. 예 철수는, 울면서 떠나는 영희를 배웅했다. •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. 예 나는, 솔직히 말하면, 그 의견이 별로 탐탁지 않아. ▶ 이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.
가운뎃점(·)	<p>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.</p> <p>예 철수·영희, 민수·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게임을 하였다.</p>
쌍점(: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. 예 문방사우: 종이, 붓, 먹, 벼루 • 시와 분,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. 예 오전 2:50(오전 2시 50분) • 의존 명사 '대'가 쓰일 자리에 쓴다. 예 75:70(75 대 70)

학습 포인트

각각의 문장 부호를 쓰는 경우를 명확히 알아둔다.

